

특집논문

농촌위생연구소의 활동과 세브란스 : 이영춘의 인적 네트워크와 그 영향을 중심으로*

김영수**

- I. 들어가며
- II. 한국농촌의 보건 문제와 농촌위생연구소의 활동
 - 1. 이영춘의 연구활동과 농촌에 대한 관심
 - 2. 농촌의 보건 상황과 농촌위생연구소의 역할
- III. 농촌위생연구소와 세브란스
 - 1. 세브란스와의 인적 연결고리
 - 2. 농촌위생연구소에서 세브란스로, 학계로
- V. 나가며

I. 들어가며

이영춘(1903~1980)은 근현대 한국의 농촌의료 분야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인물로 평가된다. 한국 사회에서 농민의 건강상태와 농촌의 생산력의 상관관계가 긴밀하다는 점은 일

* 본 논문을 작성할 때 관련 자료를 제공해 주신 정준호 선생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연구소 의학학과 및 의학사연구소, 연구조교수, 의과학 전공, 한일근대의학사 전공

찍부터 논의되었으나, 실제로 '농촌의료'에 뛰어든 인물을 찾으라고 한다면 이영춘이 유일할 것이다. 농촌의료에 대한 사회적 저변과 지원의 폭이 넓지 않은 상황에서 농촌의료사업에 참여한 이영춘은 사업을 통해 그가 추구하고자 했던 바를 실현한 한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상과 현실의 매꿔지지 않는 큰 간극을 경험했다.

그가 농촌의 현실을 직접 경험하고, 본격적으로 농촌에서 활동했던 일제강점기 후반부터 해방 후, 그리고 1960년대까지의 농촌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분야에서는 가장 소외된 공간이었다. 그는 이 공간을 중심으로 그가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이하 세브란스의전)에서 배우고, 교수한 의학 지식을 실천했다. 그의 작업은 한국 사회에 농촌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에 일조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가 일제강점기 구마모토 농장(熊本農場)의 자혜진료소(慈惠診療所)의 의사로 활동하고, 이후 농촌위생연구소를 세워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의료사업과 보건위생사업을 담당하며 봉사하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과 업적은 그가 활동했던 지역 중심으로만 알려져 있다. 그러나 작년에 그가 군산, 개정 등지의 지역에서 농민들을 진료하며 작성해 온 자혜진료소, 개정중앙병원 및 농촌위생연구소의 일지(日誌)가 등록문화재로 선정되면서 그간 역사 속에 묻혀 있던 그의 활동을 다시금 조명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영춘의 생애와 활동에 관해서는 2000년대 초에 이규식, 박윤재 등에 의해 조명된 바 있다.¹⁾ 최근 사회복지학 분야에서 이영춘의 보건사업에 나타난 보건사회정책이나 사상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²⁾ 이규식의 연구는 일제의 토지침탈로 인해 자작농의 몰락과 소작농의 증가, 식민 지주의 등장, 이영춘의 이력과 농촌위생연구소의 취지 목적 등을 소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고, 최원규의 연구는 이영춘이 주목한 농촌위생이 어떠한 배경 속에서 탄생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있다. 그는 이영춘이 사회보건의정책을 구상하고 실천한 인물, 즉 보건사회사상가 및 실천가라는 점에 주목한다. 박윤재는 농촌위생연구소의 설립 단계부터 활동, 침체에 이르게 된 전반적인 과정을 그려내고 있다. 이들 연구는 이영춘과 농촌위생연

1) 이규식, 「일제의 농촌 침탈과 농촌위생연구소」, 『의사학』 10(2), 2001; 박윤재, 「한국 농촌위생과 이영춘」, 『연세의사학』 7(1), 2003; 박윤재, 「1940-60년대 농촌위생연구소의 활동과 한국 농촌」, 기초연구지원인문사회(창의주제연구) 연구과제결과보고서, 2008; 박윤재, 「1940-60년대 농촌위생연구소의 설립과 활동」, 『역사와 현실』 72, 2009.

2) 최원규, 「『나의 교우록』을 통해 본 쌍천 이영춘의 외국 보건사회정책의 이해」, 『사회복지지역사연구』 3, 2020; 최원규, 「쌍천 이영춘의 보건사회사상과 실천: 자혜진료소에서 옥구의료보험조합에 이르기까지」, 2021년 제12회 한국사회복지지역사학회 하계학술대회 자료집, 2021.

구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역할을 담당했으나, 박윤재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역사학 분야의 본격적인 연구는 이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이영춘의 기록물이 등록문화재로 선정³⁾된 것과 탄생 12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의 생애와 활동을 재조명하는 관련 연구가 진행되었다.⁴⁾

본 논문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영춘의 '농촌의료'에 주목하고한다. 박윤재가 선행 연구에서 농촌위생연구소의 설립 및 활동에 주목했다고 한다면, 본 논문은 농촌위생연구소를 매개로 하여 동 연구소와 세브란스와의 관계를 통해 연구소의 한국 보건분야에서의 영향력이라는 점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농촌위생연구소는 민간연구소로서는 국내외적으로 크게 주목받은 연구소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연구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세브란스의전 및 동 의과대학(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과의 긴밀한 관계가 포착된다. 이에 먼저 이영춘의 농촌의료에 대한 관심과 연구소 설립 당시 농촌의 보건문제를 확인하며 농촌위생연구소의 위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연구소를 운영할 때 참여한 연구원들의 소속, 특히 연세의대 기생충학교실을 개설한 소진탁, 소아과학교실에서 한국의 소아과학을 이끈 윤덕진, 예방의학교실에서 가족계획사업을 진행하며 한국 현대의 보건문제를 해결해 나아간 양재모 등이 동 연구소에서 활발히 활동하거나 동 연구소와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농촌위생연구소와 세브란스와의 관계, 나아가 여기서 보이는 관계성이 현대 한국의 보건분야 발전에 끼친 영향에 대해 주목해 보고자 한다.

II. 한국 농촌의 보건 문제와 농촌위생연구소의 활동

1. 이영춘의 연구활동과 농촌에 대한 관심

이영춘은 1903년생으로, 1923년 평양고등보통학교 사범과를 졸업했다. 그가 수학한 세브란스의전의 학적부에 따르면, 1925년에 전문학교입학고(考)검정시험에 합격하여 같은

3) 문화재청은 2022년 9월 7일에 이영춘의 '자혜진료소 일지', '개정중앙병원 일지', '농촌위생연구소 일지' 등 관련 기록물 3건을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했다고 고시했다. https://www.cha.go.kr/newsBbz/selectNewsBbzView.do?newsItemId=155703581§ionId=b_sec_1 (검색일: 2023년 10월 1일).

4) 2023년 10월 28일(토)에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연구소 의학과 및 의학사연구소와 사단법인 쌍천이영춘박사기념사업회의 공동주관 및 주최로 '이영춘과 농촌의료'를 주제로 하는 쌍천 이영춘박사 탄생 120주년 기념 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밖에 2023년 10월 7일(토)에는 쌍천이영춘연구회 주최로 제1회 쌍천 탄생 120주년 기념 쌍천 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여기서는 쌍천의 애민, 보건 복지 등에 대한 사상과 실천을 중심으로 다루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해 세브란스의전에 입학했고, 1929년에 졸업했다. 세브란스의전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보증인 2명을 기재해야 했는데, 친형 이영기와 세브란스의전 출신 의사 김찬두를 기재하고 있어, 그가 세브란스의전에 입학할 때 김찬두의 역할이 컸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⁵⁾

이영춘은 임상보다는 기초의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세브란스의전을 졸업하던 시기부터 나타나는데, 당시 그를 “생리화학(生理化學)에 취미를 갖고, 영양학을 전공할 예정”이라고 소개하고 있다.⁶⁾ 그는 졸업한 후 세브란스의전 윤일선 교수 아래에서 연구에 몰두했는데, 세브란스의전을 졸업한 1929년부터 연구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그 첫 연구논문은 김명선과 함께 작성한 「조선인의 폐활량과 폐활량계수에 대하여」이고, 「조선여학생의 월경초조(初潮)에 취(就)하여」라는 발표로 학계에 주목을 받았다.⁷⁾ 또한 의학구락부(醫學俱樂部) 주최 의학유행회 강연에서 「내분비액상(內分泌液像)에 급(及)하는 영향 특히 비장과의 관계에 대하여」에 대해 발표하는 등 다양한 모임에서 연구발표를 진행하였다.⁸⁾ 이처럼 활발히 연구활동을 펼치던 이영춘은 1930년에 돌연 본교 생화학교실 조수⁹⁾를 사임했다. 가족을 경제적으로 지원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세브란스의전을 떠나 해주에 영춘의원(永春醫院)을 개업했다가, 곧 평산(平山) 온정리(溫井里)에 온정의원(溫井醫院)을 개업하여 한동안 공의(公醫)로 활동했다.¹⁰⁾

그러나 그는 공의로 활동하던 기간에도 연구 활동을 지속했고, 세브란스와의 인연도 이어 나아갔다. 그는 공의로 활동하던 1933년에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하던 모르핀 중독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세브란스의전 동창의학회(同窓醫學會)에서 「조선 지방병에 대하여: 모핀중독자에 대하여」를 발표하며 그가 현재 처한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연구를 지속했으며, 공의 강습차 경성을 방문했을 때나 동창회 참석을 위해 세브란스를 찾았다.¹¹⁾ 개업의로서 활동하는 것보다 연구에 관심을 가졌던 이영춘은 1934년 다시 세브란스의전으로 복귀했다. 이때는 병리학교실 조수(助手)로 부임¹²⁾하였고, 부임한 후 동창의학회, 조선의사협회 학술연설회 등에서 새로운 연구를 속속 발표했다.¹³⁾ 이처럼 활발한 연구활동을 벌인

5) 세브란스의전 이영춘의 학적부 참조.

6) 「新卒業生の 누가누구」, 『세브란스교우회보(世富蘭僑校友會報)』 11, 1929, 77쪽.

7) 『세브란스교우회보』 12, 1929, 26-28쪽; 69쪽.

8) 『세브란스교우회보』 12, 1929, 73쪽.

9)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일람(세브란스聯合醫學專門學校一覽)』, 1931, 52쪽.

10) 『세브란스교우회보』 13, 1930, 53쪽;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일람』, 1931, 75-76쪽.

11) 『세브란스교우회보』 18, 1933, 21쪽; 『세브란스교우회보』 19, 1933, 23쪽.

12) 『세브란스교우회보』 21, 1934, 2쪽.

13) 조선의사협회 제6회 총회 제1회 학술연설회에서 이영춘은 총 3개의 연구를 발표하였다. 이날 발표

이영춘은 학문적 성과를 축적하는 한편, 1934년에 개최된 일본의학회에도 참석하며 지견을 넓혔다.¹⁴⁾

윤일선 교수 아래에서 연구 활동을 지속한 이영춘은 1934년 초부터 1년간 조선의학회의 총회 발표를 비롯하여 『조선의학회잡지(朝鮮醫學會雜誌)』에 2편, 『만선지의계(滿鮮之醫界)』에 1편의 논문을 실었다. 그의 연구 중에 니코틴과 성호르몬에 관한 실험적 연구는 전세계에 유행한 흡연 습관으로 인한 니코틴 중독을 해결할 기초 연구[第一階段]가 될 정도로 뛰어난 연구성과로 인정받았다.¹⁵⁾ 또한 그가 공간한 논문 중에는 조선 산간지방에서 종두를 여러 번 실시했을 때 선감률을 분석한 논문(1935년 발표)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가 공의로서 활동했던 시기가 그의 인생에서는 그리 행복했던 시절은 아니었지만, 농촌의 무지와 빈곤이 만들어 낸 농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보건상의 문제들을 체감하는 시기였고, 이것이 이후에 발표하는 연구에 녹아들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¹⁶⁾

위와 같이 그의 연구성과는 지방병으로서의 모르핀 중독, 니코틴 중독, 산간 지방의 종두 접종 등 일제강점기의 농촌의 현실을 반영하는 연구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는 상당히 많은 연구를 수행했고, 이 연구들은 자혜진료소장으로 부임¹⁷⁾하던 시기, 교토제국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성과로 인정받았다. 자혜진료소장으로 부임하는 것은 상당 기간 동안 학계를 떠나는 것을 의미¹⁸⁾했기 때문에 그간의 연구를 일단락짓는 계기가 되었겠지만, 이때 심사 대상이 된 주논문 1편과 부논문 15편의 내용을 살펴보면, 니코틴의 성호르몬에 대한 영향, 조선인의 폐활량, 혈당량, 회충에 의한 장폐색 부검사례 등 상당히 다양한 측면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과 그 관심이 단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¹⁹⁾

그는 구마모토 농장에 부임한 뒤로도 연구 활동을 지속했고, 그 결과는 조선의사협회(朝鮮醫師協會) 및 학술연설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발표되었다. 자혜진료소에 부임한 이듬해

한 내용은 「Nicotine의 血糖及過敏症에 對한 影響」, 「稀有한 心臟畸形一例」, 「剖檢中發見한 肋膜石灰沈着症의 一例」이다. 『雜報』, 『세브란스교우회보』 21, 1934, 13쪽.

14) 「소식란」, 『세브란스교우회보』 21, 1934, 30쪽.

15) 「이영춘강사 군산용본농장 자혜진료소장 취임」, 『세브란스교우회보』 24, 1935, 44쪽.

16) 李永春, 「朝鮮山間地方ニ於ケル反覆種痘ノ善感率ニ就テ」, 『滿鮮之醫界』 167, 1935. 교우회보에는 이영춘의 성과물로서 논문 제목만 포함되어 있다. 『세브란스교우회보』 24, 1935, 20쪽.

17) 「人事」, 『세브란스교우회보』 24, 1935, 54쪽.

18) 구마모토와 처음 만난 자리에서 5년 후에 진료사업을 확장할 것을 요청하였다. 홍성원, 『흙에 심은 사랑의 인술』(쌍천이영춘박사기념사업회, 2003, 재판), 110쪽.

19) 「학위논문통과에 대한 감상」, 『세브란스교우회보』 25, 1936, 30쪽.

에도 병리학적인 연구를 포함하여 농민들의 4대 질병, 흡연 등에 대하여 발표²⁰⁾하였고, 1937년에는 동양국제농촌위생회의에도 참석하여 농촌의 보건문제에 대한 동향을 확인하고 연구도 이어 나갔다.

2. 농촌의 보건 상황과 농촌위생연구소의 역할

“민족의 원천이며 희망인 농촌은 5백 년의 이조 전제정치와 40년의 이민족 통치 하에서 항상 압박과 착취의 대상이 되어 농민은 농노로서 빈궁과 질병과 무지의 삼중고에서 탈피치 못하고 금일 극도의 피해를 나타내게 되었다. 농민의 환경과 그 원시적 생활상, 미신의 성행, 의사의 도시집중과 농촌 의료난 등 모든 현상은 오늘의 농촌으로 하여금 만연일로의 결핵성 질병, 성병, 기생충병 등 체질을 저하시키는 민족 독을 필두로 고도의 유유아(乳幼兒) 사망률, 소화기 질환 기타 많은 질환의 온상으로 만들어 민족 퇴화의 노쇠현상이 가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은 통계적 숫자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 재단법인 농촌위생원 설립 취지문 중 일부 발췌²¹⁾

1948년 설립된 재단법인 농촌위생원의 취지문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 농촌은 일제의 침탈로 인하여 피해를 겪고, 해방 후 정치적으로 혼란한 가운데 농촌의 '위생시설'은 전무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다. 일제 식민지배의 표상 도시로 일컬어진 수도 경성은 상하수도, 공중변소, 오물수거 등 위생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이 다수 부설되었다고는 하나, 1930년대 이후 '전염병 도시'로 불릴 정도로 전염병²²⁾ 이환율은 높았고, 위생상태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²³⁾

도시가 갖는 표상과는 다른 의미에서 농촌의 위생상태 개선 역시 중요했다. 일제강점기 농촌은 노동력을 기반으로 식량을 공급하는 주요 경제주체로서 노동력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농민들의 건강관리가 상당히 중요했으나, 이는 쉽게 실현되지 못했다. 농촌에 의료기관

20) 「조선의사협회 제7회총회 급(及) 제2회 학술연설회」, 『세브란스교우회보』 25, 1936, 49-50쪽; 「人事消息」, 『세브란스교우회보』 25, 1936, 71쪽.

21) 소진탁, 『농촌위생』(부민문화사, 1963), 1쪽.

22) 현재 용어로는 감염병으로 기술하는 것이 타당하나, 본 연구는 역사적인 용어가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용어의 혼재를 피하기 위하여 전염병으로 통일하여 기술하도록 한다.

23) 김영수, 「1930년대 경성부의 위생시설과 그 평가」, 『근현대 서울의 공공의료 형성』(서울역사편찬원, 2021).

을 확충해 달라는 목소리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제가 총력전에 돌입하면서 후순위로 밀려났기 때문이다.²⁴⁾ 특히 상하수도나 사람의 분뇨를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은 전무하여 농촌은 각종 기생충, 전염병을 앓는 공간으로 전락했다. 도시의 하층민과 비교해 봐도 그 삶은 크게 나을 것이 없었고, 해방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²⁵⁾

그나마 일제강점기 구마모토 농장이 있었던 지역 일대는 상황이 좀 나았다. 이영춘은 구마모토 농장의 본장(本場)인 개정(開井)과 지장(支場)인 대야(大野), 지경(地境), 화호(禾湖), 상관(上關) 등을 돌며 진료를 했고, 1939년에는 진료소를 개정, 지경, 화호에 설치하여 격일로 치료와 예방사업을 병행했기 때문이다.²⁶⁾ 이때 확충된 진료소는 3가지를 주요 사업으로 설정했는데, 그것은 농촌위생, 학교위생, 보건부(保健婦, 보건요원)였다. 농촌위생은 결핵, 화류병 등 농민의 질병, 기생충, 체력, 유아 사인 및 사망률, 모성위생(母性衛生), 환경위생, 건강상담 등을 다루는 것이었고, 학교위생은 학교의 위생상태를 조사하고 연구 지도하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무료조산(無料助産), 유아 및 모성위생, 가정위생지도 및 조사 등을 담당할 보건부를 설치하는 것도 진료소의 주요 사업의 하나였다.²⁷⁾

그가 진료소를 설치하고, 위에 언급한 것과 같은 사업을 실시하고자 한 것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구마모토 농장에 부임하기 이전부터 구상했던 것이었다. 세브란스의전에서 근무하다가 1930년에 평산 온천의 공의(公醫)로 임명되어 가게 되었을 때 그가 마주한 농촌의 현실은 학교에서 배우고 연구한 위생, 영양을 논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농민들의 무지로 인한 절망감과 허탈감뿐이었다.²⁸⁾ 그러나 동시에 농촌의 현실은 그가 농촌의료에 대해 고민하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당시 농촌의 중요도 및 가치에 비해 농민은 의학계의 연구조사 대상에서 소외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즉, 의학적인 측면에서 농촌에 주목하는 연구는 미개척분야였고, 이영춘은 여기에 주목했다.

그러나 그가 해방 전부터 구상했던 연구소 사업은 정치적인 격동기에 바로 실현되기는 어려웠다. 해방을 맞아 기존의 계획은 이루어질 수 없었으나, 자혜진료소의 진료사업이 해방 후로 연결되면서 이영춘은 농촌지역에서 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었다. 이는 해방 직후

24) 「농촌의료기관의 확충 정비를 절규」, 『매일신보』, 1940년 3월 1일.

25) 소진탁, 『농촌위생』, 2쪽.

26) 1941년 4월 1일에 지장인 화호진료소에 세브란스출신 김성환(金聲煥)이, 1942년 10월 30일에는 지장인 지경진료소에 평양고보 후배이자 세브란스출신 의사 김경식(金庚潑)이 초빙되었다. 홍성원, 『흙에 심은 사랑의 인술』, 148쪽.

27) 이영춘, 『나의 교우록』(쌍천이영춘박사기념사업회, 2004), 35-36쪽.

28) 홍성원, 『흙에 심은 사랑의 인술』, 84쪽.

구마모토 농장 본장과 지장에 근무하던 한국인 직원 40여 명을 소집하여 미군정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각 직장을 고수할 것과 3개 진료소 사업도 종전대로 운영할 것을 합의하면서 내려진 결정이었다.²⁹⁾ 아울러 군산, 옥구, 완주 인근에 진료소가 신설되어 총 6개의 진료소를 중심으로 농민들의 질병 치료에 임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농촌에 남아 농촌의료를 진행할 수 있었던 이유였다.³⁰⁾

그러한 가운데 1948년 농촌위생연구소가 개소했다. 이 연구소는 한국 농촌사회와 농민 생활의 실태를 파악하고 규명하여 농민의 건강을 해치고 체력을 저하시키는 비위생적인 생활 조건을 개선, 혁신하여 건전한 농민 생활과 농촌 문화의 발전 육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소하였다.³¹⁾ 개소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했지만, 당시 이영춘이 추구하던 농민의 생활조건 개선 및 지역의 보건수준 향상이 해방 후 미군정, 한국 정부, 국제기구가 구상하던 계획을 반영한 것이라는 점도 개소에 힘을 실어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보여주는 사례로, 1951년에 보건사회부에서 농촌위생원을 '농촌시험보건소'로 지정한 것을 꼽을 수 있다. 인구 1만 명이 사는 개정면 전역을 시범대상지역으로 삼아 모성(母性)보건, 영유아보건, 학생보건, 성병예방, 결핵예방, 급성전염병 예방, 환경위생, 보건교육, 시험검사 등을 실시하도록 한 것이다.³²⁾

또한 농촌위생연구소의 사업은 한국전쟁 후 전후 재건을 위해 1951년 창설된 유엔한국재건단(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 이하 UNKRA)의 재건계획과도 맞물려 있었다. 특히 UNKRA는 UN 산하의 특화 기관을 대상으로 한국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각 분야에 대한 장기계획을 수립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 결과 여러 기관은 한국에 조사단을 파견했는데, 유엔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이하 FAO)가 가장 먼저 조사단을 파견했다. 여기서 UNKRA가 한국의 기반 산업인 농촌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파악하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³³⁾ FAO는 두 단계 조사를 실시했는데, 1951년에 예비조사를, 1952년 8월에서 10월까지 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물은 1954년에 「남한 농업, 임업, 수산업의 재건과 발전(Rehabilitation and Development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29) 이영춘, 『나의 교우록』 46쪽.

30) 홍성원, 『흙에 심은 사랑의 인술』, 179-180쪽.

31) 홍성원, 『흙에 심은 사랑의 인술』, 193쪽.

32) 홍성원, 『흙에 심은 사랑의 인술』, 229-230쪽.

33) Jane Sung Hae Kim, "Securitizing Health -Biosecurity and Postwar Reconstruction in Korea," *The Korean Journal for the History of Science*, 44(2), 2022, pp.275-281.

in South Korea)」으로 발간되었다.³⁴⁾

이 조사와 관련하여 농촌위생연구소는 일정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1952년 농촌위생연구소에서 WHO의 원조를 받아 옥구군민 6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 결핵감염도조사 및 BCG 접종성적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이 조사와 함께 ‘군옥지구(郡沃地區)’ 학령아동과 고아원 아동에 대한 결핵감염도 조사 및 BCG 접종성적도 조사하였다.³⁵⁾ 농촌위생연구소의 『농촌위생』(1970)에 따르면 이 연구는 지면을 통해 발표된 것이 아니라 결과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 연구가 WHO의 원조 아래에서 이루어졌고, 당시 WHO에서도 결핵을 한국 사회에 만연하는 질병으로 파악³⁶⁾했던 만큼 이 연구 역시 농촌 지역의 결핵 감염 현황을 확인하고자 진행된 연구로 보인다.

이것은 한국의 WHO 조사단이 한국의 보건소를 개조하여 헬스유닛(Health Unit)이라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했던 사업과 맞물려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헬스유닛은 1926년 실론(현 스리랑카)에서 일차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행된 것으로, 특정 질병에 대한 접근이 해당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판단 아래, 보다 영구적인 해결책으로서 실론을 유닛으로 나누어 각 유닛마다 보건의료기반 시설망을 두고자 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실론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한국 농촌지역은 경제력이 낮았기 때문에 병원, 의사 등의 의료자원이 부족했고, 의료접근성도 낮았다. 이에 낮은 수준의 보건의료라도 최소한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헬스유닛에서 보건요원을 양성하여 지역의료를 담당시키고자 했던 것이다.³⁷⁾

WHO 조사단은 한국의 시, 도 등 주요 지역에 분포하고는 있으나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던 보건소에 주목하였고, 이것을 헬스유닛으로 개조하여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³⁸⁾ 헬스유닛의 단위는 약 5~7만 명의 인구가 기준이 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군(郡)의 크기가 기준이 되었다. 물론 군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인구수에 따라 1군(郡) 안에 복수의 헬스유닛을 두는 것도 가능했다. 이렇게 구상된 헬스유닛을 농촌과 도시 주변부를 중심으로 약 370개소 정도 배치하고자 하였다. 헬스유닛의 숫자만큼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여기에 배치될 요원들의 훈련 정도였다. 보고서에서도 헬스유닛의 운

34) Jane Sung Hae Kim, “Securitizing Health -Biosecurity and Postwar Reconstruction in Korea,” p.277.

35) 「농촌위생연구소 연구원업적 목록」, 『농촌위생』 3(1), 1970, 14쪽.

36) WHO/UNKRA, *Report of the WHO/UNKRA Health Planning Mission in Korea*, p.55.

37) WHO/UNKRA, *Report of the WHO/UNKRA Health Planning Mission in Korea*, p.35.

38) WHO/UNKRA, *Report of the WHO/UNKRA Health Planning Mission in Korea*, p.33.

영은 훈련받은 요원인지 아닌지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고 기술하고 있다.³⁹⁾

다만 WHO조사단이 언급한 것처럼 헬스유닛에 배치할 수 있는 훈련된 요원은 없었다. 따라서 그들은 헬스유닛의 도입을 구상하는 단계에서 각 도에 시범적인 헬스유닛을 두고 사업을 실시해 보고자 했다. 여기서 WHO 조사단은 개정의 농촌위생연구소에 주목했다. 농촌위생연구소는 WHO가 진행하고자 하는 헬스유닛사업과 유사한 위생환경 개선, 예방 접종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전염병 예방 사업, 학교위생 등을 포함한 모자보건, 보건교육 및 훈련 등의 사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각 지역에 시범 헬스유닛을 두고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단계에서, 전라북도도 개정 농촌위생연구소가 헬스유닛의 원형(prototype)이 되었다.⁴⁰⁾ 다만 이러한 시도가 실제 보건 행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농촌이 당시 한국 산업의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점과 해방 직후, 한국전쟁 등 굶직한 사회적인 동요 속에서 국가재건이라는 시대적인 요구와 맞물리며 농촌위생연구소는 한 지역의 보건의료에 대한 사례 연구에 머무르지 않고, 한국 농촌의 의료 및 위생 연구의 중추로서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한 가운데 농촌위생연구소는 UNKRA의 한국 재건사업 계획과 맞물리며 한국 농촌의 현실을 대변하고,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주요 기관으로서 자리매김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1960년에 당시 보건사회부 시설과장이었던 한상태가 한국전쟁 이후 한국 공중보건의 발전상에 대해 남긴 글인 「WHO 사절단이 본 한국보건사업-맥도날드보고서를 중심으로」에서 보고서에서 한국보건사업의 주요 주제가 보건소 설치 및 운영, 환경위생, 모자보건사업, 나병, 결핵, 기생충 문제였다는 점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농촌위생연구소의 활동은 한국의 당면문제들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문제의 해결 방안을 실행에 옮기는 실행기관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⁴¹⁾

39) WHO/UNKRA, *Report of the WHO/UNKRA Health Planning Mission in Korea*, p.33.

40) 농촌위생연구소와 함께 시범 헬스유닛으로 지목된 곳은 온양 국립병원이었다. WHO/UNKRA, *Report of the WHO/UNKRA Health Planning Mission in Korea*, p.33, p.35.

41) 이영춘은 농촌의 3대 질병으로 결핵, 기생충, 성병을 언급했는데, 한상태는 성병 대신 나병 문제를 언급하여 양자가 생각하는 주요 질병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한상태, 「WHO 사절단이 본 한국보건사업-맥도날드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건세계』 7(4), 1960, 40-42쪽.

Ⅲ. 농촌위생연구소와 세브란스

1. 세브란스와의 인적 연결고리

농촌위생연구소는 당시 농촌의 보건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해야만 했던 연구기관이었지만, 운영이 원활하지만은 않았다. 무료 진료는 농촌위생연구소의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했고, 농촌사회의 전반적인 빈곤 역시 진료비 부담을 높이는 장애물이었다. 또한 해방 전과는 달리 미국의 의약품이 수입되고, 도시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병원의 위치도 영향을 끼쳤다. 이에 이영춘은 부실한 설비, 낮은 급여로 인해 의료진이 자주 교체되거나 공석이 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낼 정도였고, 도시와의 인접성 역시 신경 쓰고 있었다. 진료사업과 함께 예방적 차원의 업무를 담당하는 농촌위생연구소의 활동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었지만, 국가와 정부의 배려는 부족했다.⁴²⁾

이러한 상황은 진료사업뿐만 아니라 연구사업을 진행하는 데에도 영향을 끼쳤고, 이 두 가지 사업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연구원을 필요로 했다. 이러한 농촌위생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서 참여한 연구원들은 누구였을까? 농촌위생연구소는 총무부, 연구부, 지도부, 교육부의 4개의 부서를 두고 운영되어 위생계몽활동, 교육을 위한 강습회, 진료소 등을 두었고, 1951년에는 연구소와 부속진료기관을 총괄하는 농촌위생원이 설립되었다. 서류상 분과구분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연구부를 중심으로 농촌위생사업의 기초자료를 만드는 조사작업과 병원과 진료소에서 이루어지는 진료부의 활동이 주된 업무였다.⁴³⁾ 이 두 가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의학도들이 다수 필요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의과대학을 졸업한 인재들이 시골로 내려와 농민들을 진료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상당히 많은 수의 연구원이 농촌위생연구소에서 활동하였다. 여기에는 이영춘 개인의 인맥과 학맥이 작용했다. 우선 해방 전부터 이영춘을 도와 화호진료소를 담당했던 김성환(1915~1979), 지경진료소를 담당한 평양고등보통학교 및 세브란스의전 후배인 김경식(1920~2001)을 꼽을 수 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인맥으로는 개정병원 초대 원장을 역임한 도쿄제국대학을 졸업한 조카사위 차기준, 개정병원의 약국을 담당할 이주완을 언급할 수 있다.

42) 박윤재, 「한국 농촌위생과 이영춘」, 17쪽.

43) 박윤재, 「한국 농촌위생과 이영춘」, 15쪽.

이와 함께 세브란스의전의 인맥이 이영춘 박사가 진료소를 운영하는 데에, 그리고 농촌 위생연구소를 운영하는 데에 상당히 큰 영향력을 미쳤다. 앞서 언급한 김성환, 김경식 모두 세브란스의전의 후배였음을 잘 알려진 사실이고, 1948년 농촌위생연구소를 개소한 후 연구소에서 근무한 연구원 중에도 세브란스의전 출신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다음의 표는 1970년에 발간된 『농촌위생』 3(1)에 수록된 연구소 업적목록에 노출된 연구원 중에 세브란스의전 및 세브란스의과대학의 졸업생에 해당하는 인물을 추린 것이다. 참고로 연구원 업적에 이름을 올린 연구원은 총 29명이고, 그중 세브란스 출신은 총 15명이다.⁴⁴⁾

표 1. 농촌위생연구소의 세브란스 출신 연구원 일람(가나다순, 졸업년도순)

이름	졸업년도	이름	졸업년도
서정주(徐正柱)	1940	양재모(梁在模)	1948
이상헌(李相軒)	1940	윤석우(尹錫宇)	1948
소진탁(蘇鎭瑋)	1941	이한규(李漢珪)	1948
김경식(金庚湜)	1942	이세연(李世衍)	1949
박종무(朴鍾茂)	1944	이근태(李根泰)	1950
이재희(李裁熙)	1944	김남식(金南植)	1953
윤덕진(尹德鎭)	1944	이준영(李俊永)	1954
김태연(金泰淵)	1948		

* 출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총동창회, 『세우』 참조

『농촌위생』 3(1)에 게재된 농촌위생연구소 연구원의 업적일람에는 1948년부터 1955년 까지의 연구가 포함되어 있다. 작성자 중에 세브란스 출신의 졸업년도를 확인해보면 1940년에서 1954년까지 상당히 넓게 분포해 있고, 농촌위생연구소가 개소한 이후에는 거의 매년 세브란스출신의 연구원이 활동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세브란스 졸업생이 한국전쟁 때에 피란을 내려가면서 동 연구소의 사업에 참여했고, 전후에는 다시 서울로 복귀했다고 알려져 있었으나, 실제로 전쟁 이후에도 연구소와의 인연이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44) 가나다순으로 김경식, 김경실, 김근호, 김남식, 김병조, 김성환, 김순태, 김영섭, 김중환, 김태연, 박영집, 박종대, 박종무, 서정주, 소진탁, 심봉섭, 양재모, 윤덕진, 윤석우, 이근태, 이상헌, 이세연, 이재희, 이준영, 이한규, 장재환, 차기준, 채규일, 최승조이다. 『농촌위생』 3(1), 1970, 14-15쪽;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총동창회, 『세우』, 2009 참조.

그 연결점 중의 하나는 무의촌 진료와의 상관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 세브란스 의전 학생들은 방학마다 농촌으로 무의촌 진료를 떠났고, 1940년부터는 범위를 확장하여 평북, 함남, 만주 등을 포함하여 전국 각지를 순회하였다.⁴⁵⁾ 이것이 가능했던 데에는 1920년대 후반 이래로 세브란스 학생들은 농촌에서의 사업을 구상했고, 의료인이자 지식인으로서 농민이 필요로 하는 의술을 제공하고 보건위생지식을 전파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었다.⁴⁶⁾ 물론 해방과 전쟁 등 일련의 정치적 격변으로 무의촌 진료봉사가 위축되는 시기도 있었지만, 그 명맥은 꾸준히 유지되었다.

1948년 세브란스의과대학을 졸업한 양재모(1919~2018)도 무의촌의 봉사활동을 했던 인물 중 한 명으로, 그의 회고는 세브란스의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무의촌 진료와 이영춘과의 관계를 잘 보여준다. 그는 재학 시절 전남의 화순군, 옥구군 등지로 무의촌 진료를 갔는데, 어느 면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일단 내려가면 이영춘이 지시해 주었다고 한다. 또한 이영춘은 학생들에게 선배 의료진과 시설을 소개해 주고, 연구소 시작 경위, 관할 구역, 대상 인구의 현황 및 농민의 보건의료상의 문제점 등을 설명해 주고, 진료용 의약품을 보조해 주어 무의촌 진료를 물심양면으로 도왔다. 그리고 이것이 이듬해 양재모가 세브란스의과대학 위생학 교실에 있으면서 개정에 가서 농촌 주민들의 김치를 거두어 기생충란을 검사하는 연구를 진행하는 계기가 되었다.⁴⁷⁾

비슷한 경험은 윤석우의 사례에서도 나타난다. 그는 1947년 세브란스의과대학 4학년 여름방학에 양재모와 함께 무의촌 진료를 떠난 인물로, 양재모와 동일한 경험을 했다. 이후 그는 공중보건학을 공부하고 귀국하여 보건후생부에 있던 윤유선, 송형래, 백인행, 주인호 등의 특별강연을 듣게 되었는데, 이때 공중보건이라는 학문을 처음 접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분야가 이영춘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과 공통점이 많다는 점을 느끼고 개정으로 내려와 연구활동을 하게 되었다.⁴⁸⁾

위의 사례는 일부의 사례에 불과하지만, 위의 사례를 통해 농촌위생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연구에 세브란스 출신 연구원이 다수 관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연결고리들이 농촌위생연구소와 세브란스의 의학 연구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었던 이유를 잘 설명해준다.

45)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사학과, 『세브란스 학생운동사』(역사공간, 2020), 92-93쪽.

46)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사학과, 『세브란스 학생운동사』, 84쪽; 93쪽.

47) 양재모, 「이영춘 선생님을 추모하면서」, 홍성원, 『흙에 심은 사랑의 인술』, 310-311쪽.

48) 윤석우, 「나의 개정 시절의 회고(이영춘 박사를 모시고)」, 홍성원, 『흙에 심은 사랑의 인술』, 371-374쪽.

농촌위생연구소와 세브란스가 연구와 인력면에서 상호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영춘의 연구원에 대한 배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배려라는 말 대신에, 양자의 유기적이고 선순환적인 관계가 드러나는 지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영춘은 농촌 일선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현대의학에서 낙후되기 쉽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진료사업에 봉사하는 청년 의사의 장래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했다. 자혜진료소를 운영하던 시절, 재직 4년이 되면 2년간의 의학연구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고, 1945년 4월 그 첫 예로 화호진료소의 담당의사 김성환을 세브란스의전의 이영춘의 스승인 윤일선 교수의 연구실에 등록시키고, 1년간은 현직에 있으면서 수시로 연구실을 내왕하면서 연구하도록 하였다.⁴⁹⁾

이처럼 농촌위생연구소는 연구소에 소속된 의학자들에게 농촌의 현실을 보여주고, 실지 조사에 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그리고 의학자들은 이곳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학계로 진출하여 해방 이후 한국 사회가 안고 있던 보건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앞장설 수 있었다. 다음 장에서는 양자의 유기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몇몇의 인물을 다루고자 한다. 먼저 농촌위생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면서 이곳에서 연구한 논문들을 모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하여 학위를 수여 받은 소진탁, 그리고 소아과에 대한 관심을 연구소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풀어낸 윤덕진, 마지막으로 한국 예방의학의 기틀을 마련하고 발전을 주도한 예방의학의 태두인 양재모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2. 농촌위생연구소에서 세브란스로, 학계로

먼저 소진탁(蘇鎭璋, 1921~2016)의 사례를 살펴보자. 그는 농촌위생연구소에서 기생충 조사를 담당하던 연구원이고, 여기서의 연구 결과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의학박사학위를 받은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농촌위생연구소에서 배출한 첫 번째 박사이고, 그의 사례는 농촌위생연구소와 세브란스와의 긴밀한 관계를 잘 보여준다.

소진탁이 기생충 연구에 몸담게 된 계기를 그의 개인 이력과 함께 잠시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자. 소진탁은 1921년 전북 익산시 출생으로, 고창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938년에 세브란스의전에 입학, 1941년에 졸업했다.⁵⁰⁾ 그가 졸업했을 무렵에는 기생충학이라

49) 이영춘, 『나의 교우록』, 41쪽.

50) 1941년 12월 26일에 졸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시기는 전시체제기로 의학교육이 3년 반으로 단축되었던 시기에 해당한다.

는 과목은 없었다. 1917년 고바야시 하루지로(小林晴治郎)가 조선총독부병원 및 경성의학 전문학교에 부임하며 우리나라의 기생충을 연구, 조사하는 한편 기생충학을 강의했지만, 세브란스의전의 기생충학은 세브란스의전을 졸업한 후 미국에서 임상병리를 전공하여 병리학교실에 부임한 최동 교수가 1925년부터 주 1시간씩 강의한 것이 유일하다. 즉, 해방 전까지 한국인으로서 기생충학교실의 정식 교직원인 한 명도 없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불모지였다. 해방 후에 세브란스의대에는 한경순, 박희영, 서울대에는 미생물학교실의 제2강좌로 라순영, 정가영, 서병설, 이화여대에는 이명순 등이 기생충학회 창립모임을 가질 정도였고, 관련 연구자의 규모는 작았다.⁵¹⁾

이 정도로 불모지였던 기생충학에 대해 그는 어떻게 접했던 것일까? 우선 그는 졸업 후 세브란스의전 세균학교실⁵²⁾에 들어가서 처음 관련 학문을 접하게 되었고, 경성의 일본인 거리에서 기생충학 서적을 구매하며 기생충학에 관심을 키웠다고 전해진다. 세균학교실에 들어간 이후 연구를 더 하고자 일본으로 건너가 도쿄제국대학 전염병연구소로 가게 되는데, 이곳에서 연구생으로 재직하며 결핵과 장티푸스균을 연구하고자 했다. 그는 처음에 정풍원이라는 결핵병원에 근무하며 결핵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는데, 결핵균을 배양검사하기가 쉽지 않은 관계로 세균 연구에서 기생충 연구로 연구 방향을 전환하였다고 전해진다. 이때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대변검사를 진행하면 거의 모든 사람에게서 회충, 십이지장충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연구 가능성을 확인했던 것이다.⁵³⁾

소진택은 일본에서도, 식민지 조선에 돌아와서도 기생충학 연구를 하고 싶어했으나, 만족할 만한 연구를 진행할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다. 귀국 후 다시 세브란스의전 세균학교실에 들어갔으나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어서 임상공부를 위해 전라북도청 위생과에 들어가서 도립병원과 연락하며 균배양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 그러나 이 역시도 그가 원하던 기생충학 연구는 아니었다. 그러던 중에 그는 이영춘과 만나게 되었고, 전북도청 위생과에 취직하여 그곳에서 담당하는 대변검사와 군산도립병원 환자의 대변검사를 겸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그는 타이포이드(typhoid)균을 다수 발견하게 되

51) 「대한기생충학회 발전 20년 약사」, 『기생충학잡지』 17(2), 1979, 3쪽.

52) 세브란스의전 세균학교실에 최영태 교수가 있었는데, 그는 1930년 세브란스의전을 졸업한 후 일본 게이오대학에서 미생물학을 수학한 인물이다. 1940년부터 세브란스의전에서 세균학을 가르쳤다. 그는 장티푸스 등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던 인물로, 소진택이 그의 교실에 들어가게 된 것은 개인적인 인맥에 의한 것이었다. 연세대학교 의사학과, 「기생충 예방에 바친 한평생, 소진택」, 『연세의사학』 14(2), 2011, 77쪽.

53) 연세대학교 의사학과, 「기생충 예방에 바친 한평생, 소진택」, 78쪽.

면서 아메바에 흥미를 갖게 되었다. 동시에 전북에만 머물지 않고, 서울에 왕복하면서 용산 철도병원, 세브란스병원을 다니며 연구와 실험을 진행했다. 그는 원충 조사를 진행하며 기생충학 연구에 몰두했다.⁵⁴⁾

연구를 찾아 여러 곳을 타진하던 그는 1949년부터 농촌위생연구소의 연구원이 되어 기생충 연구를 이어 나가게 되었다. 이영춘은 기생충의 영향과 임상연구 등을 적극 장려했고, 그는 이영춘의 영향을 받아 연구소를 거점으로 본격적으로 기생충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한국전쟁 시기에 연구소 산하 팔봉진료소 소장으로도 근무하여 농촌의료에도 참여했다.⁵⁵⁾ 이때는 전쟁 중에 피란 내려온 의사가 많아지면서 군산과 옥구 인근에 새로운 진료소가 다수 등장하던 시기이기도 하고, 의사들이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참가하며 연구소의 활동이 탄력을 받았던 시기이기도 하다.⁵⁶⁾

이때 그가 농촌위생연구소에서 조사했던 기생충 연구는 주로 간디스토마와 십이지장충으로, 농촌 아동의 손톱에서의 기생충 층란 검사, 김치 내 기생충 및 층란 생존 여부, 토양 성분과 십이지장충 유충 발육과의 상관관계 등을 연구했다. 그의 연구는 이영춘이 창간한 기관지인 『농촌위생』에 게재되었고, 그가 농촌위생연구소에서 얻은 성과는 박사학위 취득으로 이어졌다.

한국전쟁 후 학교가 정상화되어감에 따라 소진택은 1954년부터 세브란스의과대학에서 기생충학강의를 맡게 되었고, 1957년 기생충학교실이 처음 창설될 때 초대 주임교수를 맡아 기생충학 연구와 교육을 이끌었다. 이외에도 그는 대한기생충학회 및 기생충박멸협회를 창립하는 데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그는 서울대, 가톨릭대 교수들과 함께 대한기생충학회를 창립할 때 처음 회동했던 5인 중의 한 명이었고, 기생충박멸협회는 그가 주도하여 세운 기관이다.⁵⁷⁾ 소진택의 회고처럼 농촌에 기생충이 많아 예방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이영춘의 의견과 농촌위생연구소에서의 경험이 학회 창립에 상당히 영향을 끼쳤던 것은 자명하다. 아울러 이 당시 정부가 국민 보건에 대한 노력을 기울일 때라서 도청 위생과, 보건과 등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기는 했으나, 일손이 부족했던 탓에 민간 단체의 활동을 독려했던 것도 그의 활동폭을 넓히는 계기로 작용했다.⁵⁸⁾ 또한 세브란스의전 출신으

54) 연세대학교 의사학과, 「기생충 예방에 바친 한평생, 소진택」, 80쪽.

55) 홍성원, 『흙에 심은 사랑의 인술』, 214쪽.

56) 홍성원, 『흙에 심은 사랑의 인술』, 214쪽.

57) 「대한기생충학회 발전 20년 약사」, 5쪽.

58) 연세대학교 의사학과, 「기생충 예방에 바친 한평생, 소진택」, 85쪽.

로 해방 후 미군정청 예방의학국장, 보건부 방역국장 등을 역임한 최영태(1930년 출), 해방 직후 존스홉킨스대학으로 연수(전염병 연구)를 다녀온 후 1947년 4월부터 약 2년 2개월 동안 보건후생부 방역예방과장으로 재직한 백행인(1939년 출)⁵⁹⁾ 등 당시 보건행정 분야에 세브란스의과대학 동문이 많이 있어서 민간 단체 및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 활동할 수 있었다고 전해진다.⁶⁰⁾

특히 기생충박멸협회는 1964년 4월 국민건강을 위한 ‘기생충박멸 0%운동’이란 거창한 깃발을 내걸고 발족한 학회로, 1958년 발족한 한국위생동물협회를 발전적으로 승계한 조직이다. 소진탁은 한국위생동물협회 창설부터 관여했다.⁶¹⁾ 한국위생동물협회는 기생충학회 및 보사부와 공동으로 매년 봄, 가을 2회 실시해오던 기생충예방주간에 학술강연회, 기술강습회, 세미나, 계몽운동, 집단검사와 치료사업 등을 전개했는데, 여기에서 매년 성과를 거뒀다. 그러한 가운데 한국의 기생충 문제가 외국인간원조기관한국연합회(Korea Association of Voluntary Agencies, KAVA, 이하 KAVA)의 관심사가 되면서, 정부기관에서 더욱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했고, KAVA를 통해 막대한 양의 구충제를 도입하여 무료투약사업을 전개할 수 있었고, 이것은 기생충 박멸에 크게 공헌하였다. 당시 이 협회에서 소진탁은 이사를 맡았고, 이영춘은 회장을 맡고 있었는데, 그들은 협회 간부와 함께 KAVA와 다각적인 관계를 맺어나가면서 실질적인 지원방법을 끌어내어 기생충 관리사업을 하나의 국가사업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⁶²⁾ 이처럼 소진탁은 농촌위생연구소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세브란스에서의 교육과 연구로 기생충학 연구⁶³⁾에서는 권위자가 되었고, 예방사업과도 적극적으로 연결시켜 국가적인 문제를 해결하였다.

다음으로 윤덕진(尹德鎭, 1919~2015)의 사례를 살펴보자. 윤덕진은 한국의 실정에 맞는 소아과의 분과제도를 확립한 소아과학의 대부이다. 그는 1919년 경기도 강화에서 태어났고, 소아마비로 인해 고등보통학교를 중퇴하여 전문학교 입학자 검정시험을 치러 1941년에 세브란스의전에 입학했다. 일본이 전시기에 더 많은 의사를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단축시키면서 3년 반만인 1944년 9월에 졸업했다. 졸업 후에는 서울성모병원

59) 이동원, 「6·25전쟁과 한국 보건의학계 및 보건학의 형성」, 『동국사학』 69, 2020, 348쪽.

60) 연세대학교 의사학과, 「기생충 예방에 바친 한평생, 소진탁」, 85쪽.

61) 한국기생충박멸협회, 『한국기생충박멸협회 20년사』(한국기생충박멸협회, 1984), 46쪽; 69쪽.

62) 한국기생충박멸협회, 『한국기생충박멸협회 20년사』, 73쪽.

63) 소진탁과 함께 연세의대 기생충학교실에서 활발히 연구 활동을 펼친 인물로 이근태, 정평림, 안영겸 등도 꼽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면 관계상 이들의 활동은 생략하였으나, 소진탁과 함께 집필한 논문은 참고문헌에 수록하였다.

에 2년 동안 근무하다가 1946년 말부터 고향인 경기도 강화에서 인애의원(仁愛醫院)을 운영했다. 이후 다시 성모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전쟁 중에 농촌위생연구소 개정중앙병원 소아과에서 근무했고, 전후에 미국 위스콘신대학병원 소아과 레지던트, 존스홉킨스대학 보건대학원에서 보건학 석사를 받고, 1957년 말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소아과학교실에 부임했다. 이후 1961년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⁶⁴⁾

그는 소아마비로 인해 학업을 중단해야 했던 개인적인 경험으로 의대에 진학했고, 소아과를 선택했다.⁶⁵⁾ 그가 농촌위생연구소에서 근무하게 된 계기는 한국전쟁과 피란이라는 외부적인 요인도 있었지만, 이영춘이 윤덕진의 장인의 친구라는 개인적인 인연도 있었다. 이영춘은 졸업 후 돈만 벌려고 하는 세브란스 졸업생의 행태를 비판하면서 윤덕진에게 농촌에 내려와 농촌보건사업에 참여하도록 권했다고 한다.⁶⁶⁾ 이러한 인연으로 연구소 사업에 참여한 윤덕진은 연구소에 근무하면서 소아과 진료뿐만 아니라 연구소가 진행하는 여러 가지 연구에 참여하였다. 예를 들면, 저영양증 문제, 개정면 주민의 출생 및 사망률, 유산 및 사산, 유아 사망, 유아 영양법 등 소아과학에 관한 연구뿐만 아니라, 일본뇌염의 후유증 및 예후, 치료와 관련된 연구, 농·산·어촌민의 출생, 사망 및 사인 등에 관한 연구이다.⁶⁷⁾ 위의 연구는 1950년대에 작성한 논문을 시기순으로 배열한 것으로, 그의 연구 스펙트럼이 비단 소아과학에만 머물지 않고, 전염병이나, 농어촌의 전반적인 보건상태에 관한 관심으로 뻗어나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그는 1957년에 한국 농촌지역의 영유아 사망률에 대한 논문을 미국 소아과학회지에 영어로 게재하였는데, 이 논문은 농촌위생연구소의 성과가 세계적으로 발표된 첫 논문이었다.⁶⁸⁾ 그리고 이 논문은 농촌위생연구소의 성과이지만, 연세대 의과대학 소속의 교수가 발표한 것이었다.⁶⁹⁾ 이 이후의 연구도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농촌지역을 포괄하고 있었으며, 소아과학에 관한 연구이면서도 동시에 기생충학이나 예방의학, 농촌위생 등과 관

64)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소아과학교실 세아회 편, 『보원 윤덕진 교수 회갑기념 논문집』(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소아과학교실 세아회, 1979);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편, 『한국 의학의 길을 원로들에게 묻다』 1(역사공간, 2021), 330-336쪽.

65)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편, 『한국 의학의 길을 원로들에게 묻다』 1, 338쪽.

66)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편, 『한국 의학의 길을 원로들에게 묻다』 1, 336-337쪽.

67) 「농촌위생연구소 연구원업적 목록」, 『농촌위생』 3(1), 1970, 14-17쪽.

68) 윤덕진은 이 논문이 한국인으로서 처음으로 해외 소아과학 분야 잡지에 실린 것으로 기억한다고 구술하였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편, 『한국 의학의 길을 원로들에게 묻다』 1, 341쪽.

69) 다음의 단행본에는 발표한 논문 전문이 수록되어 있고, 필자 소속에 농촌위생연구소를 기재함과 동시에 현주소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소아과학교실이라고 적고 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소아과학교실 세아회 편, 『보원 윤덕진 교수 회갑기념 논문집』, 1쪽.

련되어 있었다. 이는 모두 농촌위생연구소가 주력하던 사업을 기반으로 진행된 연구였고, 따라서 그의 연구에도 연구소 사업과의 강한 상관성이 드러난다.

이러한 그의 연구 경향은 1960년대에도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이때는 소아과학과 기생충학, 예방의학이 좀 더 유기적으로 접목된 형태로 나타난다. 그는 1965년에 경기도 내의 여러 지역을 순회하며 페디스토마의 역학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연구 주제만 살펴보면 기생충학이나 예방의학 연구로 보인다. 그러나 연구 목적은 페디스토마가 아동 보건에 장애가 된다는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었다.⁷⁰⁾ 다만 농촌위생연구소에서 진행했던 연구와 다른 점은 대상 지역이 수도권으로 옮겨왔다는 점이다. 그는 경기도를 서울 아동의 페디스토마 발생 원인을 제공하는 가재의 주요 공급지로 설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연구 방식은 농촌위생연구소에서의 연구 방법을 수도권 지역에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의 연구에서는 1950년대에서 1960~70년대에 걸쳐 점차 영유아에 관한 임상 연구가 확대, 발전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동시에 그의 연구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1970년대 초까지는 농촌 및 농촌 아동에 주목하는 연구, 아동의 지역별 건강상태 조사, 학교 급식과 영양의 상관관계 등 농촌위생연구소의 예방의학사업과 연계되는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⁷¹⁾ 이러한 그의 연구는 차이나 메디컬 보드(China Medical Board, 이하 CMB)로부터 상당한 지원을 받으며 진행된 것이었고, 그는 해방 후 소아과학 분야를 이끌어 나아가는 중추적인 인물이 되었다.⁷²⁾

마지막으로, 양재모(梁在謨, 1919~2018)의 사례를 살펴보자. 양재모는 예방의학자로, 경제 개발기의 가족계획사업을 이끌며 한국의 가족계획사업을 세계적인 성공 사례로 만든 장본인이다. 그는 1919년생으로, 1938년 휘문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후 5년 정도 사회생활을 하다가 세브란스의전에 입학했다. 고등보통학교 졸업 후에는 전라남도 농촌에 있던 소라금융조합에서 근무했다. 1948년 세브란스의전을 졸업한 후에 진로를 고민하던 때, 조합에서 근무할 때 마주한 농촌 농민이 어떻게 하면 적절한 의료를 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

70) 우리나라에는 아이들이 홍역에 걸렸을 때 부모가 이를 치료하기 위해 페디스토마의 제2 중간숙주의 하나인 가재를 생으로 지져서 그 즙을 내 먹는 폐습이 있고, 1960년대에도 이러한 폐습은 만연하여 아동 보건에 지장을 준다고 기술하고 있다. 윤덕진, 『경기도에 있어서의 페디스토마의 역학적 조사』(연세대학교 의과대학, 1965), 1쪽.

71)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소아과학교실 세아회 편, 『보원 윤덕진 교수 회갑기념 논문집』, i-x쪽.

72) 윤덕진은 CMB의 지원으로 1956년, 1968년 두 번에 걸쳐 해외연수를 다녀왔으며, 이와는 별도로 1962년과 1969년에 연구비를 받았다. 여인석, 「세브란스를 중심으로 본 CMB의 한국의학 재건사업」, 『연세의사학』 18(1), 2015, 191-193쪽.

며 위생학교실(현 예방의학교실)을 선택했다고 전해진다.⁷³⁾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된 계기로, 앞 장에서 언급한 학창시절 무의촌 진료를 위해 전라북도로 내려갔을 때 이영춘과 그의 농촌위생연구소와의 인연이 작용했고, 이후 농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기생충 검사에 참여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양재모는 대학 졸업 후 학교에 남았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두 명보다 농촌위생연구소와의 인연은 깊지 않다. 그러나 한국전쟁 시기에 피란을 내려가면서 연구소 사업에 합류하며 경험을 쌓았던 것은 분명하다. 1953년 김제군 광활지역의 농촌 주민을 대상으로 한 생활 환경 및 결핵 감염 조사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이다.⁷⁴⁾ 학창 시절의 이영춘과 농촌 위생연구소와의 인연, 그리고 졸업 후 한국전쟁 시기 1950년대 초까지 농촌위생사업에 참여했던 경험이 그가 예방의학에 관한 관심을 키우는 계기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심이 본격적인 가족계획사업과 연결된 것은 세브란스의전 졸업 후 위생학교실에서 근무할 때 미국 인구협회 직원과 연결되면서부터이다. 그리고 CMB에서도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게 되면서 사업은 본궤도에 올랐다.⁷⁵⁾ 양재모는 1961년에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 창시에 관한 건의를 정부에 하였고, 1966년에는 CMB로부터 기초 보건위생 연구로 1,700 달러의 연구비를 받아 관련 연구를 진행했다.⁷⁶⁾ 본 논문에서는 그가 추진한 1960년대의 가족계획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으나, 양재모가 추진한 보건사업이 도시 주변지역과 농촌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는 점과 1970년대에 들어서도 꾸준히, 그리고 확대된 형태로 진행된다는 점에는 주목하고자 한다.

양재모의 예방의학 연구와 사업은 1970년대에 들어서는 도시와 농촌 양쪽을 아우르며 진행되었다. 대표적으로는 1972년 서울특별시와 공동으로 연희지역 시민아파트 및 그 주변의 영세민을 위한 시범적인 보건관리사업을 실시하고, 보건의료혜택을 제공한 사업과, 1974년에 독일 선교기관인 개신교개발원조처(die Evangelische Zentralstelle für Entwicklungshilfe, E.V., EZE)의 원조로 강화군에 연세대학교 보건원을 수립하여 농촌 주민들을 위한 저렴한 의료전달제도의 개발시범사업을 진행한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강원도 원주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종합병원을 세워 원주시민 및 주변 탄광, 시멘트공장, 발전소 등의 산업지대의 주민에 대한 보건관리사업을 실시하고, 무의면을 대상으로 하는

73) 연세대학교 의사학과, 「한국 가족계획운동의 대부, 양재모」, 『연세의사학』 14(1), 2011, 88-94쪽.

74) 「농촌위생연구소 연구임업적 목록」, 『농촌위생』 3(1), 14쪽.

75) 연세대학교 의사학과, 「한국 가족계획운동의 대부, 양재모」, 95쪽.

76) 여인석, 「세브란스를 중심으로 본 CMB의 한국의학 재건사업」, 184쪽.

원주병원 이동진료반을 운영한 것도 언급할 수 있다. 연세대를 중심으로 하는 예방의학 연구와 사업의 경험치는 이후 영동세브란스병원 건설에 서독 차관을 받는 데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⁷⁷⁾ 이처럼 양재모 개인의 예방의학에 대한 관심에 농촌위생연구소의 경험치가 더해지면서 그는 1950~70년대 한국 사회의 당면 보건문제 해결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다.

V. 나가며

본 논문에서는 이영춘이 설립한 농촌위생연구소가 한국 근현대 보건사업에서 어떠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쳤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영춘의 농촌에 대한 관심과 농촌위생연구소의 설립 및 동 연구소의 활동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동 연구소에서 활동한 연구원의 상당수가 이영춘의 개인적 인맥 및 세브란스 학맥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과 이들의 동 연구소에서의 경험이 연구소의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해방 후 한국 근현대 보건사업과 맞닿아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였다.

농촌위생연구소는 민간연구소이기는 하지만, 해방 후 정부의 국가재건과 경제개발이라는 정책 아래에 정부가 추진하는 보건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기관으로 역할을 담당했다. 농촌위생연구소의 본연의 사업 및 시범사업에 참여한 연구원들은 이 경험을 발판 삼아 다시 학계로 다수 진출했고, 연구소에서 다수를 차지하던 세브란스 출신은 다시 모교로 돌아와 기생충학, 소아과학, 예방의학 분야 등에서 활약했다. 그들의 역할은 비단 학계에서의 활동에 그치지 않고, 당시 한국 사회가 해결해 나가야 할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로 활약했다. 즉, 농촌위생연구소는 다양한 보건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영춘의 개인적 인맥, 학맥을 통해 세브란스 출신을 비롯한 우수한 의학자들을 수용했고, 그들은 연구소에서의 경험치를 바탕으로 학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현대 한국의 보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앞장섰다. 소진탁, 윤덕진, 양재모 등이 농촌위생연구소와 인연을 맺은 과정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들의 이력과 담당한 사업은 농촌위생연구소와 세브란스의 협력관계, 나아가 이 관계가 한국의 보건사업에 기여한 바를 잘 보여주고 있다.

다만, 농촌위생연구소가 한국 근현대 보건의료분야 전반에서, 그리고 전라북도라는 지

77) 김영수, 「영동세브란스병원과 서독 공공차관: 한국 의료문제 해결의 교차점」, 『연세의사학』 26(1), 2023, 92쪽.

역을 중심으로 보건의료의 향상에 이바지하고, 영향력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소 자체는 지원 부족 등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기능은 약화되었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러한 점은 1960년대 이후 가속화된 도시화와 이촌향도로 인해 이영춘이 해결하고자 했던 농촌보건문제에 대한 주목도가 낮아졌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고, 그로 인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한국의 보건의료정책 및 사업이 진행된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못했지만, 농촌의료개선사업에 주목했던 동 연구소가 지속되지 못했던 이유를 해방 후 보건의료정책과 연결시켜 이해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이것은 향후 연구로 남겨둔다.

핵심어: 이영춘, 농촌위생연구소, 농촌지역, 공중보건, 보건의료, 세브란스, 소진탁, 윤덕진, 양재모

논문 투고일: 2023.11.17. 심사 완료일: 2023.12.1. 게재 확정일: 2023.12.4.

참고문헌

1. 자료

『매일신보』, 『마산일보』

『세브란스교우회보(世富蘭僑校友會報)』

『농촌위생』 1(1), 2(1), 3(1)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학적부

WHO/UNKRA, Report of the WHO/UNKRA Health Planning Mission in Korea
(맥도널드 보고서), 1952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일람(セブランス聯合醫學專門學校一覽)』, 1931

2. 단행본

소진탁, 『농촌위생』(부민문화사, 1963)

소진탁, 『지금까지 지내온 것』(재동문화사, 1983)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소아과학교실 세아회 편, 『보원 윤덕진 교수 회갑기념 논문집』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소아과학교실 세아회, 1979)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사학과, 『세브란스 학생운동사』(역사공간, 2020)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사학과 편, 『한국 의학의 길을 원로들에게 묻다』 1(역사공간, 2021)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총동창회, 『세우』(2009)

이영춘, 『나의 교우록』(쌍천이영춘박사기념사업회, 2004)

카바40년사 편찬위원회 편, 『외원사회사업기관활동사-외국민간원조기관한국연합회40
년사』(홍익재, 1995).

한국기생충박멸협회, 『한국기생충박멸협회 20년사』(한국기생충박멸협회, 1984)

홍성원, 『흙에 심은 사랑의 인술』(쌍천이영춘박사기념사업회, 2003, 재판)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 *Rehabilitation and Development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in South Korea*(Columbia University Press, 1954)

3. 연구논문

- 김동민, 「위생사업을 위한 농촌환경의 조사보고」, 『우석의기대잡지』 2(1), 1971
- 김영수, 「1930년대 경성부의 위생시설과 그 평가」, 『근현대 서울의 공공의료 형성』 (서울역사편찬원, 2021)
- 김영수, 「영동세브란스병원과 서독 공공차관: 한국 의료문제 해결의 교차점」, 『연세의사학』 26(1), 2023
- 김종환, 소진탁, 안영겸, 김상준, 이근태, 박병재, 「기생충예방을 위한 분뇨의 위생적 처치에 관한 연구 5. 분뇨 분리식 변소와 기생충 예방효과에 대한 실험」, 『대한내과학회지』 8(3), 1965
- 박윤재, 「한국 농촌위생과 이영춘」, 『연세의사학』 7(1), 2003
- 박윤재, 「1940-60년대 농촌위생연구소의 활동과 한국 농촌」, 기초연구지원인문사회(창의주제연구) 연구과제결과보고서, 2008
- 박윤재, 「1940-60년대 농촌위생연구소의 설립과 활동」, 『역사와 현실』 72, 2009
- 소진탁, 「糞線蟲 Strongyloides stercoralis에 의한 복수환자 일례」, 제6회 대한의학협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1954
- 소진탁, 「肝디스토마 流行地方에 있어서의 數種貝類內 Cercaria 檢査成績」, 제7회 대한의학협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1955
- 소진탁, 「Lysimachia Clethroides Duby의 絛蟲驅蟲力實驗」, 제7회 대한의학협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1955
- 소진탁, 이근태, 안영겸, 이연호, 「A New Second Intermediate Host of Genus Paragonimus」, 『The Korean Journal of Parasitology』 2(1), 대한기생충학열대의학회, 1964
- 소진탁, 이근태, 정평림, 이재홍, 이정희, 김영한, 홍순억, 「삼조식 변소를 설치한 제주도내 일부락민의 기생충 감염률 추이」, 『최신의학』 11(8), 1968
- 송대석, 안영겸, 소진탁, 「기생충 예방을 위한 분뇨의 위생적 처치에 관한 연구: 3. 야질산소-다가 회충난자 산소소모에 미치는 영향」, 『대한내과학회지』 7(12), 1964

- 안영겸, 이연호, 「전남 고흥군 포두면의 폐흡충 중간숙주 조사보고」, 『종합의학』 9(1), 1964
- 안영겸, 소진탁, 「한국의 주요 항구도시를 중심으로 한 서조(鼠蚤)의 역학적 조사연구」,
The Korean Journal of Parasitology 12(1), 대한기생충학열대의학회, 1974
- 양재모, 「한국 농촌에서의 출산력과 가족계획에 관한 연구」, 『대한내과학회지』 7(11), 1964
- 양재모, 김명호, 「연세지역에 대한 보건기초조사」,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1(1), 1968
- 양재모, 「모자보건 발전을 위한 방안」, 『대한의학협회지』 13(7), 1970
- 양재모, 「보건요원에 대한 가족계획 훈련의 국제적 추세」, 『인구문제논집』 14, 1972
- 양재모, 「가족계획과 모자보건」, 『대한간호』 12(1), 1973
- 양재모, 「80년대 지역의료보험의 전개」, 『한국농촌의학회지』 5(1), 1980
- 양재모, 「우리나라 가족보건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및 건의」, 『예방의학회지』 24(1), 1991
- 여인석, 「세브란스를 중심으로 본 CMB의 한국의학 재건사업」, 『연세의사학』 18(1), 2015
- 연세대학교 의사학과, 「한국 가족계획운동의 대부, 양재모」, 『연세의사학』 14(1), 2011
- 연세대학교 의사학과, 「기생충 예방에 바친 한평생」, 『연세의사학』 14(2), 2011
- 윤덕진, 『경기도에 있어서의 페디스토마의 역학적 조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1965
- 윤덕진, 이기영, 안영겸, 이윤희, 「페디스토마의 환경학적 조사연구」, 『소아과』 10(4), 1969
- 이규식, 「일제의 농촌 침탈과 농촌위생연구소」, 『의사학』 10(2), 2001
- 이동원, 「6·25전쟁과 한국 보건의학계 및 보건학의 형성」, 『동국사학』 69, 2020
- 정평림, 「질트리코모나스 감염진단을 위한 제동반응 및 응피반응의 응용」, *The Korean
Journal of Parasitology* 8(1), 1970
- 최원규, 「『나의 교우록』을 통해 본 쌍천 이영춘의 외국 보건사회정책의 이해」,
『사회복지역사연구』 3, 2020
- 최원규, 「쌍천 이영춘의 보건사회사상과 실천: 자혜진료소에서 옥구의료보험조합에
이르기까지」, 2021년 제12회 한국사회복지역사학회 하계학술대회 자료집, 2021
- 한상태, 「WHO 사절단이 본 한국보건사업-맥도날드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건세계』 7(4),
1960
- 「농촌위생연구소의 역사를 말한다」, 『연세의사학』 7(1), 2003
- 「대한기생충학회 발전 20년 약사」, 『기생충학잡지』 17(2), 1979

岩本愛吉, 「傳染病研究所の系譜から見た日本の感染症對策略史」, 『モダンメディア』 64(5),
2018

横田陽子, 「日本近代における細菌學の制度化-衛生行政と大學アカデミズム」, 『科學史研究』
48, 2009

Chin-Thack Soh, Keun-Tae Lee, Kee-Mok Cho, Yung-Kyum Ahn, et al.,
“Resistance of Free-living Stages of Soil-transmitted Parasites of
Pesticides”, *Yonsei Reports on Tropical Medicine* 6(1), 1975

Jane Sung Hae Kim, “Securitizing Health -Biosecurity and Postwar
Reconstruction in Korea,” *The Korean Journal for the History of Science*,
44(2), 2022

Abstract

The Activities of the Institute for Rural Health and Severance: Focusing on the Academic Connections of Lee Young Choon and Their Influence

Kim Young-soo*

This paper aims to show that the Institute for Rural Health, founded by Lee Young Choon,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establishment of public health initiatives in post-liberation Korea and has had an impact on modern and contemporary public health projects in Korea. Specifically, this study examines Lee's interest in rural areas, the establishment of the Institute for Rural Health, and its activities to identify its impact on rural health. The Institute for Rural Health was staffed by a number of researchers with personal and academic connections to Lee. Many of the researchers were graduates of Severance Medical College (University), Lee's alma mater, and the experience they gained at the Institute was not limited to the Institute's achievements, but allowed them to return to their alma mater and the field of public health administration, where they were able to make practical contributions to the public health initiatives in contemporary Korea after 1945.

Keywords: Lee Young Choon, Institute for Rural Health, Rural Area, Public Health, Severance, Soh Chin-Thack, Yun Duk Jin, Yang Jae-Mo

* Research Assistant Professor, Division of Medical History, Department of Medical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 Institute for History of Medicine